

강창원

건국대학교
동물생명과학대학 교수,
본회 R&D위원

우리 축산의 쓰나미-그 후의 사료업계

쓰나미의 파괴력은 참으로 굉장하다. 세계 최고로 인내와 자제력이 강한 일본인들이 눈물을 보였다. 일본 열도를 뒤흔들었던 규모 9.0의 대지진 발생 여파로 높이 15m의 쓰나미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잇따른 폭발이 일본은 물론이고 우리나라까지 공포에 떨게 하고 있다.

천재지변의 쓰나미 앞에 일본인들이 보여준 자제력과 시민정신에 세계가 감탄했으나, 일본 정부와 원전 관계자들의 관리능력은 너무 초라하여 재난을 확대 하였다는 원성이 일본은 물론 세계 각국에서 들끓고 있다. 안타깝게도 이렇게 엄청난 재난을 당한 일본이 쓰나미 이후에 그 이전의 일본으로 회복하는데 필요한 리더십 부재가 더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그런데 우리 축산업계는 일본 쓰나미를 걱정하고 있을 만큼 한가한 때가 아니다. 지난해 연말과 올해 초에 거쳐 구제역과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HPAI) 발생 여파로 대형 쓰나미와 같은 국가적인 재난을 초래 하였다.

이러한 재난에 대처하는 양태가 어찌면 그리도 일본 쓰나미의 경우와 유사한지... 사육 현장에 있던 양축가, 방역담당자, 그리고 일반 국민들은 인내와 의연함으로 악성 질병 차단에 사력을 다하였으나 우리 정부와 관계자들의 초기 대응 자세나 전략은 안타까울 정도로 답답하였다.

그 결과 재난은 더욱 확대되어 질병 발생 지역 사육가는 물론 지역 주민들의 생업에 많은 피해를 주었고 전국적인 축산물 가격 상승이 불가고를 부채질(?) 한다는 원성에 더하여 환경 및 동물보호 단체들은 연일 우리 축산의 부정적인 면을 성토했고 있다.

그 간 우리 축산이 국민 건강과 농촌경제에 기여한 공로라도 이야기 할라치면 이는 구차한 변명쯤으로 치부되는 상황에서는 그저 입을 다물 수 밖에 없다.

특히 경제적으로 가장 손실이 크면서도 하소연할 기회도 방법도 찾지 못할 상황에 처한 사료업계로서는 참으로 병어리 냉가슴 앓기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

그 동안 우리 축산업은 지속적으로 빠르게 성장해 왔으며, 그 결과 농업발전을 주도하고 있다. 2009년도 전체 농업생산액 중에서 축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39.9%나 되어 2000년의 25.3%에 비하면 경이로운 발전이며, 이제는 축산이 농촌경제를 주도하는 위치에 와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축산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것이 우리 사료업계라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는 크나큰 공지가기도 하지만 이번처럼 축산업계가 힘들어질 때는 그 만큼 큰 부담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우리 축산업이 성장하여 농업 및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 만큼 이제는 과거의 정책과 산업전략 만으로는 곤란하므로 새로운 판을 짜야 하겠다는 정부와 비정부 단체의 목소리를 간과 할 수만은 없는 시점에 와 있다.

즉 축산의 쓰나미 이 후에 우리 사료업계를 포함한 축산업계가 국민들 앞에 일본이나 우리나라 정부 관계자들처럼 '앞으로는 열심히 잘 해보겠습니다.'라는 말만으로 면피하려 든다면 값비싼 교훈을 헛되이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어느 때 인가는 큰 장애물로 부메랑이 되어 올지도 모른다.

게다가 국내 사료시장이 포화 상태가 되어 날로 치열한 레드 오션(red-ocean) 경쟁 속으로 내몰리고 있는 사료업으로서는 차제에 정체성과 방향성을 재검토 해보았으면 좋겠다.

사료산업의 정체성 내지는 비전을 사료제조 및 판매에만 국한시키기 보다는 영양산업(nutritional business) 또는 식품연계산업

(food chain)에 두자.

그리하여 19세기 후반 이후 불어 닥친 신자유주의에 근거한 글로벌 무한경쟁에서 오는 변화의 높은 파고를 극복하는 데는 레드오션에 머무르기 보다는 퍼플오션(purple-ocean)을 찾아나가서 퍼플오션 전략을 수행함으로써 우리나라 축산이 지속가능 산업으로 이어지는데 견인차 역할을 계속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여기에는 사료업에 대한 사명(mission)이나 경영이념의 변화가 필요하다.

즉 단순히 사료제조 판매를 통해서만 이윤을 추구하는 근시안적 경영에서 벗어나 이제는 창의적인 방법으로 축산물의 최종소비자들의 건강이나 삶의 질, 즉 복리 증진을 통해서 기업 경영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자원과 재원을 재배치할 시점에 와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하여 축산이 환경, 소비자 동물보호 단체와 대립각을 세우는 산업이 아니라 사회 공헌 기업으로 나가는 데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시대의 흐름이나 변화에 가장 늦게 대응한다고 비난 받는 정부 마저도 이미 과거의 농림부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 명칭과 조직을 개편하지 않았는가.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으나 현재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 56개국에 진출한 제네시스 BBQ 윤홍근 회장이 1995년도에 BBQ를 창업한 것은 1994년 윤 회장이 미원 그룹에 근무하던 때 마니커즈 치킨 전문점 담당자로서 본사가 추구하려던 기업 경영목표 등의 갈등 때문에 회사를 나와 독자적인 사업

을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즉 사료회사와 양계장을 가진 미원 그룹이 기업의 비전이나 미션(mission)을 영양산업이나 종합식품산업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윤 회장이 추진하던 외식사업을 버렸던 것으로 보여진다.

연구개발(R&D)에 투자를 늘리자. 석·박사 몇 명 채용하는 것만으로 R&D를 잘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석 박사들이 연구에 집중할 만한 시간과 장소가 허락되지 않고 영업을 위한 기술지도에만 내몰리는 상황이라면 귀중한 인적자원을 낭비하는 셈이 된다.

더욱이 우리 사료업계는 국내 축산시장의 한계점을 인식하고 해외 사료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거나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주로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이 주 대상 지역이다 보니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축적된 노하우만으로도 경쟁력이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나라들의 축산분야 발전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언제까지고 현재 우리가 가진 기술력만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자명하다.

우리나라 전자산업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린 삼성과 LG중에서 요즘을 들어 한 회사는 여전히 높은 경쟁력을 유지하는데 비해 다른 한 회사는 변화에 뒤떨어지며 많은 적자를 내고 있다는 소식에서 우리 사료업계도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다.

즉 미국 애플사나 MS사와 같은 경쟁사와 경쟁을 위해서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R&D에 인적·물적 투자를 지속해온 삼성에 비

하여 제품 디자인과 마케팅에 치중해온 LG는 경쟁력 상실이라는 뼈저린 교훈을 얻고 나서야 R&D를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다고 한다.

가끔 사료분야 최고 경영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제 사료업에서는 전자나 의약처럼 R&D에 인적자원을 투입하기보다는 그저 영업을 위한 기술지도 정도로 만족하는 듯한 인상을 받는다. 그러다 보니 축산의 쓰나미 어려운 환경변화에 부딪치면 속수무책으로 상황변화만을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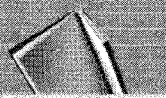
구제역이나 HPAI는 정부 특히 수의과학 검역원만이 책임지고 해결할 문제인가? 이제 몇 개월 후이면 사료내 항생제 첨가가 금지된다. 항생제 대체제만 좀 첨가 해주는 것으로 할 일을 다하는 것일가?

곧 우기철을 맞이하여 콕시들퇴제를 써도 콕시들퇴 발생으로 어려움이 큰 양계장에 가서 어떻게 고객 서비스를 할 것인지?

그 뿐이 아니다. 분노의 해양투기가 금지되는데 사료회사는 그 것은 농장의 문제로 치부해 버리면 그만인가? 동물보호단체의 압력에 따른 사육 환경 개조가 입법화되어 EU에서는 내년부터 산란계를 케이지에서 사육하지 못하게 되고 미국에서는 2015년부터 케이지 사육이 금지 된다.

이와 같은 상황 변화 속에서 국내 동물보호단체들이 강 건너 불 보듯이 지켜보고 있는 않을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변화들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데 있다.

이러한 문제에 도전하여 해결능력이 있는



업종이나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고, 살아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산비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사료를 기업경영에 통합하려 들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그러한 기업만이 지속적인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으리라 본다.

우리 축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리더쉽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리더쉽 구축에 사료업계가 앞장섰으면 좋겠다.

일본의 대지진 쓰나미 발생후 재난이 더 크게 확대 된 것은 정치에 미치는 영향에만 관심이 더 많았던 일본 총리의 리더쉽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많았다.

뿐만 아니라 이 재난 이후 일본 복구에는 막대한 지금과 국민 희생이 따를 수 밖에 없는데 그것이 단순한 피해 지역복구에 그칠 것인지 아니면 일본 열도를 리모델링 해야 할 것인지 방향부터 설정할 리더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축산은 어떤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구제역 백신은 사용하지 않은 청정지역으로 할 것인지? 백신을 사용한 청정지역으로 할 것인지? 축산농의 면허제를 도입할 것인지? 등록제로 할 것인지 등 등.

작년 초 강화지역 구제역 발생 때 이미 일부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은 여건에서는 구제역 백신 사용 없이 청정지역 유지가 우리나라 축산과 국가경제를 위해 현실적인 산업 전략인지 문제 제기가 있었으나 그 목소리는 아무런 반향을 일으키지 못하고 사라졌다.

그 후 2차로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우

왕좌와 하는 사이 전국으로 번졌으나 영하 10도의 추위에 제대로 효능을 발휘할 소독약이 어떤 것인지조차 알지 못한 상태에서 책임소재를 따지기에 바쁘지 않았던가?

농수산 식품분야에서 가장 먼저 기업형 경영을 도입하여 가장 선진화된 농산업으로 육성해왔고 지금은 해외에서도 성공적인 농기업으로 자리 매김해 온 사료업계가 국내 축산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다시 한번 리더쉽을 발휘할 때라고 생각한다.

그 첫째 되는 이유는 농산업 분야를 통털어 가장 우수한 브레인 풀(brain pool)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생산자 단체와 정부 및 환경단체들의 의견이 상치 되었을 때 사료분야에서 상이한 입장들을 조절하여 윈윈윈(win-win-win) 전략을 수립 하는데 효과적이라고 여겨진다.

과거 우리 사료업계는 축산 발전은 물론 국가경제 및 국민건강 증진에도 선도적으로 리더쉽을 발휘해 왔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언제부터인가 생산자 단체, 정부, 소비자 및 환경 단체들의 눈치 보기에 급급하면서 과거에 보였던 리더쉽이 빛을 잃어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 축산업이 방향을 잡지 못하고 국가의 걱정거리가 되는 것을 가만 두고 볼 수만은 없지 않는가? 사료업체 간에 레드오션 전략을 찾느라 골몰하다가 축산업이 위축되고 그 결과 축소된 국내 사료시장에서 과다출혈 경쟁에 따른 기업경영의 의욕을 상실하는 소탐대실의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자.

이를 위해서는 사료업체 간에 힘을 합하여 한국 축산이 새로이 도약하기 위한 산업 전략 수립에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때가 지금이다. 과거 생산액으로 보아 매우 소규모에 불과하던 토종닭 생산농가들은 농가별로 과당 경쟁을 하여 시장 출하가격이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기가 부지기수였다.

그 후 이들이 힘을 합하여 한국 토종닭 협회를 결성하여 사단법인화 하고 토종닭 인증제(한닭)와 소비촉진 운동을 통하여 생산량이 대폭 증가 하였는데도 수익성 있는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작년도에는 도계 가공회사와의 공동 노력으로 베트남에 토종닭을 수출하기 시작하였다. 이 또한 리더십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웅변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사료업체가 뜻을 모으면 한국 축산의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충분히 이러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쓰나미와 같은 천재지변이나 역사적인 거대한 사건은 우리에게 겸손한 자세와 새로운 성찰에 의한 개혁을 요구한다. 게다가 지금 우리는 산업혁명 때보다 더한 급진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

그런데 사료회사들은 30년 전에 비하여 자동화되고 전산화 되는 것 이외에 크게 변한 것이 없다면 이제는 기업의 비전이나 미션 그리고 관리방식 등에 있어서 변화이상의 혁신(innovation)이 필요하며 우리는 혁신을 향해 나아가야할 적기에서 있다고 생각된다.

사료산업이 지금까지 성공적인 산업으로 성장해 온 것에 자만하거나 그 것을 지키기 위해 제로섬(jero-sum) 게임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여 재도약의 발판으로 삼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30여 년 전에 세운 정체성에 변화를 가하자. 변화에 대처할 R&D에 투자하자. 그리고 이들을 기반으로 한국 축산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리더십을 구축하자. 